

반가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gwban@krivet.re.kr
송민정 태재대학교 연구교수 mintsong@taejae.ac.kr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직업능력 정책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숙련 기반 교육(skill-based education), 도제(apprenticeships), 기술 훈련(technical training)을 강조하는 직업능력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미국 우선주의 정책 기조하에 국내 산업 부활 및 국내 일자리 창출을 강화하고, 학위가 아닌 숙련 중심으로 채용하려는 뚜렷한 움직임이 예측됨. 한국 노동시장의 경우 숙련 또는 직업능력이 아닌 학력만이 주된 신호 기제로 작동함으로써 상당한 비효율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야기하고 있기에 직업능력을 제대로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한 관련 제도 전반의 개편이 요구됨. 국민의 직업능력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평생학습 정책 강화, 그리고 일터에서 숙련 활용을 촉진하는 일터혁신 관련 정책의 보다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함.

01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정책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노동시장 및 고용 정책: 미국 우선주의 기조하에 기업 대상 규제를 완화하고 이민을 제한하여 국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국민 고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 규제 완화
 -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기업이 부담스러워하는 규제 완화를 중요한 정책 목표로 함
 - 제조, 에너지, 농업과 같은 산업의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 및 노동 관련 규정을 철회하였고, 임시직 및 독립 계약에 대한 감독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옹호함
- 이민 제한 및 외국인 노동 의존도 축소
 -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우선시하는 정책 목표에 따라 H-1B 비자(전문직 취업비자) 요건을 강화하는 등 이민을 제한하는 정책 역시 중요하게 추진함
 - 서류 미비 근로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어 이민 노동에 크게 의존하는 산업(예: 농업, 건설 등)이 큰 영향을 받았음
- America First Jobs Agenda
 - 제조업, 석탄 채굴, 철강 생산 등 국내 산업을 부활시키고, 이를 통해 국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함
 - 2017년 감세 및 일자리 법을 통해 법인세를 줄여 일자리의 리쇼어링을 장려하였고, 지역 일자리 기회를 강화하기 위해 공급망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는 인센티브를 적극 옹호함
- 대규모 인프라 투자 추진
 -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적극 추진하고자 함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교육 및 훈련 정책: 첨단 기술 교육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직업 및 기술 교육 프로그램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의 취업 지원 역량을 제고하고자 함

- STEM 및 기술 이니셔티브
 -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이하 STEM)’ 교육을 장려함. 미래 노동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5G 및 첨단 제조 기술을 위한 교육 투자를 강화함
- 학교 선택 및 직업 교육
 - 학교에 대한 교육 소비자의 선택을 옹호하여 학생들이 차터 스쿨(Charter school)에 다니거나 바우처를 사용하여 사립 교육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퍼킨스 직업 및 기술 교육법에 따라 직업 및 기술 교육(CTE) 프로그램 자금 지원을 확대함
- 고등교육 개혁
 - 교육 프로그램을 산업의 인력 수요에 연결하여 학자금 대출 부채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둠
 - 대학이 명확한 취업 결과를 제시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장려하고 취업 시장 잠재력이 낮은 학위 등록을 억제함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숙련(skill) 정책: 숙련 습득을 위한 도제 제도 및 숙련 직업 경로를 적극 옹호함

- 도제 및 직업 훈련 장려
 - 기술 및 제조 부문에서 숙련을 습득하는 경로로 도제(apprenticeships)를 장려하였으며, 도제 제도를 확대하고 업계에서 인정받는 프로그램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 2017년 행정 명령에 서명함
- 숙련 직업에 초점
 - 건설, 용접, 제조와 같은 직업을 전통적인 대학 학위 대신 실행 가능한 직업 경로로 장려하는 문화적 변화를 적극 옹호함

02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직업능력 정책 예상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노동시장 및 고용 정책: 관세 부과를 통한 수입 제품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이민 단속을 강화하여 자국민의 일자리 경쟁을 줄일 것으로 예상

- 관세를 통한 무역 장벽 강화
 - 국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수입품에 상당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으로 예상됨. 여기에는 캐나다와 멕시코산 모든 제품, 그리고 중국 및 BRICS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추가 관세가 포함됨
 - 트럼프는 기술 발전보다 미국 일자리 보존을 옹호하면서 부두 작업과 같은 산업의 자동화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도 함
- 이민 단속 강화
 - 1기에 이어 2기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이민 단속을 할 것으로 예상됨. 군사 및 구금 시설 확장을 통해 서류 미비 이민자들을 대량으로 추방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음
 - 이러한 접근 방식은 미국 근로자들 사이의 일자리 경쟁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교육 및 훈련 정책: 학교 선택의 보편성을 활성화하고 전통적 가치에 초점을 맞춘 애국 교육을 장려할 것으로 예상

- 학교 선택
 - 교육부를 해체하고 연방 정부의 통제권을 주 정부로 이양할 것을 선거 과정에서 제안함
 - 또, 보편적인 학교 선택을 옹호하여 공적 자금을 사립 및 종교 교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임. 학교 교육에 대한 옵션 및 교육 프로그램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학부모의 통제를 강화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됨
- 커리큘럼 변경
 - 비판이론이나 ‘성 이데올로기’를 가르치는 학교에 대해 연방 자금을 삭감하고 ‘애국 교육’과 전통적 가치에 초점을 맞춘 커리큘럼을 장려할 것으로 예상됨

- 대규모 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무료 온라인 대학인 '아메리칸 아카데미(American Academy)'를 설립하여 접근가능한 교육을 제공하고 고등교육에서 문제시되는 진보적 편견에 대응할 것을 제안함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숙련(skill) 정책: 1기 행정부에 이어 숙련 기반 채용의 중요성을 옹호하며 학위보다 직업능력을 강조하는 정책 추진 예상

- 숙련 기반 채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 트럼프는 1기 행정부 재임 기간 동안 숙련 기반 채용을 이미 적극적으로 옹호한 바 있음. 2020년에 트럼프는 특정 연방 직업(federal jobs)에 대한 학위 요건을 없애고 학문적 자격에서 실무 능력으로 초점을 옮기는 행정 명령을 발표하기도 하였음. 트럼프는 "학위가 반드시 숙련을 대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교육적 배경보다는 숙련을 바탕으로 더 넓은 인재들에게 연방 일자리를 개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숙련 기반 채용에 대한 그의 지속적인 지원은 연방 정부가 고용에 접근하는 방식에 장기적인 변화가 있음을 나타냄. 트럼프에게 이러한 접근 방식은 채용 장벽을 줄이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정부 채용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실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개인을 유치하는 수단이기도 하기 때문에 2기 행정부에서는 이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학위보다 직업능력 강조 정책
 - 트럼프가 옹호하는 숙련 기반 채용 추진은 미국인들이 교육과 직업 기회를 보는 방식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직업능력 개발 정책의 강조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불필요한 학위 요건을 제거함으로써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 보다 공평한 취업 시장을 만들고자 할 것임. 이 새로운 접근 방식은 개인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주요 산업의 숙련 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노동력의 경쟁력과 역량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트럼프가 학위보다 숙련에 초점을 유지함에 따라 연방 채용의 미래는 더욱 포괄적으로 되어 젊은 미국인들에게 더 넓은 범위의 직업 경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트럼프 1기 행정부 2017.1. ~ 2021.1.	트럼프 2기 행정부 2025.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및 노동 관련 규정 철폐 - 노동 시장 유연화 • 이민 제한 및 외국인 노동의존도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1B 비자 요건 강화 -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 • America First Jobs Agenda 	<p>노동시장 및 고용 정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를 통한 무역 장벽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품 관세 부과 확대 - 미국 일자리 보호 • 이민 단속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 이민자 추방 계획 - 자국민 일자리 경쟁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EM 및 기술 이니셔티브 • 학교 선택 및 직업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소비자 선택 옹호 - 직업 및 기술 교육(CTE) 프로그램 자금 지원 확대 • 고등교육 개혁 	<p>교육 및 훈련 정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정부로의 통제권 이양 - 보편적 학교 선택 옹호 • 커리큘럼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국 교육' 장려 - 무료 온라인 대학 '아메리칸 아카데미(American Academy)'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제 및 직업 훈련 장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제 제도 확대를 위한 행정 명령 서명 • 숙련 직업에 초점 	<p>숙련(Skill) 정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능력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련 기반 교육(skill-based education), 도제(apprenticeships), 기술 훈련(technical training) 필요성 강조

그림 1 | 트럼프 1기와 2기 행정부 직업능력 관련 정책 비교

트럼프 1기 행정부부터 지속된 학위보다 숙련을 강조하는 정책과의 연속성, 앞선 민주당 정부 정책 방향과의 단속성도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숙련 기반 교육(skill-based education), 도제(apprenticeships), 기술 훈련(technical training)을 강조하는 직업능력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정책과의 연속성, 그리고 이전 민주당 정부 정책과의 단속성을 특징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미국 정치와 정책 추진 과정을 전제한다면, 단속적인 정책은 실제 작동 과정에서 여러 난관에 부딪혀 정치적 레토릭, 즉 포퓰리즘적 수사에 그칠 가능성도 큼
- 그런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이 트럼프 1기 정부 정책과 연속되고 민주당 정부 정책과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실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직업능력 정책이 이에 해당함
- ‘4년제 학위 vs. 숙련 기반 직업훈련’: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 중 트럼프 후보와 해리스 후보는 고등교육에 대한 태도의 중요한 변화를 언급함
 - 전통적으로 4년제 대학 학위는 공공 부문 취업을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성공의 주요 경로로 간주됨
 - 두 정치 지도자 모두 이제 숙련 기반 교육(skill-based education), 도제(apprenticeships), 기술 훈련(technical training)을 포함한 대안 경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트럼프와 해리스는 연방 직업에 대한 엄격한 학위 요건을 개혁한다는 공통 비전을 공유함. 고등교육 비용이 상승하고 취업 시장이 변화함에 따라 양당 모두 학위보다 숙련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옹호하고 있음. 이를 통해 필요한 능력은 있지만 공식 자격이 부족한 미국인에게 취업의 기회를 주고자 함
- 요컨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직업능력 정책은 트럼프 1기 행정부와 의 정책 연속성이 크고, 앞선 민주당 정부와의 정책 단속성도 크지 않기 때문에 다른 정책 분야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음

03 시사점

-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및 과제
 - 엄격한 이민 정책과 대규모 추방은 외국인 노동 의존 분야의 노동력 부족을 심화시켜 소비자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교육부 폐지와 학교 선택 강조는 교육의 질과 접근성 격차를 낳아 공교육 시스템이 약화될 수 있음
 - 미국 노동자를 우선시하고 교육 환경을 재편하겠다는 트럼프의 공약은 잠재적인 효율성 저하와 사회적 포용성에 관해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임
 -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정책들이 포퓰리즘적 친노동자 수사로 끝날지, 실제 파급력 있는 정책으로 실행될지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움. 자국 내의 여러 비판으로 정책 추진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도 큰 상황임
 - 다만, 학력보다 숙련과 능력을 강조하는 직업능력 정책의 경우 트럼프 1기 행정부와 의 연속성이 크고, 다른 정책들과는 달리 민주당 정책 기초와의 유사성도 확보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실행될 것으로 예상함
- 국내 정책에서의 함의
 -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노동 정책과 관세 정책이 결합되면 수출 중심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한국은 국내 일자리 보호 원칙에 따라 트럼프 정부의 자국 우선주의에 유연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함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내 산업 부활 및 일자리 창출을 강화하되, 그 일자리에 학위가 아닌 숙련 중심으로 채용하려는 뚜렷한 움직임이 예상됨. 한국 노동시장의 경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러한 움직임과 달리 여전히 숙련 또는 직업능력보다 학력이 주된 신호 기제로 작동함으로써 상당한 비효율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야기하고 있기에 직업능력을 제대로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한 관련 제도 전반의 개편이 요구됨
 - 국민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평생학습 정책, 그리고 일터에서 숙련 활용을 촉진하는 일터혁신 관련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